



포커스

G20 및 주변 4강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조윤영 중앙대 교수



▶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포커스
G20 및 주변 4강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통일 돋보기
남북한을 뒤흔든 역대 주요 탈북 사건



Today 남북
북한의 맥주, 그리고 상업광고

▶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통일을 여는 사람들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 잡는 일, 그 자체가 계 삶"



통일 Talk
통일열정과 건강한 안보관을 지닌 우리 청년들의 힘을 믿습니다!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한 분도 안 깎아주는 마트 '린색하다' 했죠

▶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



느낌 있는 여행
이 또한 사랑이여사 전라남도 함평



통일 웹툰
내 연필 줄게. 그만 시속해!



통일 레시피
북한의 이색 새우요리, 새우찬욱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난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건의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① 포커스 ②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통일문화토크 NUAC 뉴스</p>	<p>즐거움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포,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G20 및 주변 4강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조윤영 중앙대 교수

지난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한일 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하였다. G20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 컨퍼런스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이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순방기간 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동아시아 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중·일·러 4대강국 정상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기록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정상외교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란 윈스턴 처칠이 처음 사용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자주 쓰면서 오늘날 정식 외교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걸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때론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4강과 갖는 정상회담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 해법 역시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비유이다.



▲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성숙해가는 중견국가로서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조를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번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의 경우 양자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어 유엔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두 강대국의 협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엄격한 이행을 확인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의 사용을 재확인하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의미 있는 정상 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그동안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명 수준에서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동시에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시화되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이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협할 정도의 가공할 무기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만약 북한이 SLBM을 보유할 경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측면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대응책에 호응하는 미국정부의 공식적 확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 9월 6일 라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방어적 자위조치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유의 호소력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배치와 함께 방위 공약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한중간의 갈등과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중외교를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안정에 불리할 것”이라며 사드배치 반대를 표명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방어적 자위 조치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유의 호소력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였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였고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입장차를 향후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완강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향후 지속적인 대중소통과 설득 외교를 전향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 관점에서의 대중외교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행태에 대한 다층적 대응방안

박 중 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에 관한 보도는 북한이 처한 이중적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과 각종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모습과 함께, 맨손으로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 복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모습은 북한의 모순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대내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주민의 삶과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주민들이 맨손으로 힘겹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평화공세를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국력 열세를 만회했다고 판단하고, 공세적 입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감행한 뒤, 대화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다시 도발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도발과 대화공세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군사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한미의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선 후 신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권력안정과 주민지지 확보를 위한 업적 과시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파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권력안정과 주민지지 확보를 위한 업적 과시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파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불예측성과 대담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정책 결정 과정의 비제도화는 불예측성과 불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난중상 중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배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로켓탄, 전술유도탄, 각종 미사일 개발 등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다층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다층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다층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다층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 자체의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을 겨냥한 공공외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결집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적 일체감은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고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대북제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통일미래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을 뒤흔든 역대 주요 탈북 사건

올해 4월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입국한 일이 있었고, 여름에는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이 화제가 됐다. 특히 한 외교부 관계자가 '최근 8개월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들이 역대 가장 많다'고 밝히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지난 30여 년 간 남북한을 뒤흔든 주요 탈북사건을 짚어보았다.



1983년 2월

북한군 이웅평 대위
중공제 MiG-19 전투기를 몰고 입국했으며, 이후 한국 공군 소속으로 복무



북한탈출 김만철씨가족 기자회견
1987. 2. 20

1987년 1월

김만철 씨 가족 11명
장모와 처남 등 일가족 전체를 이끌고 청진항에서 50톤급 배로 탈북



1991년 5월

고영환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
첫 외교관망명. 김일성 주석의 프랑스어 통역을 담당하기도 함.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재직



1994년 7월

조명철 김일성종합대 교수
북한 최고 엘리트의 탈북으로 주목, 남한에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역임



1997년 4월

황장엽 노동당 비서, 김덕홍 여광무역 총재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핵폭탄급' 최고위층 인사 탈북으로 화제



〈2011년 이후 탈북민 현황〉 자료: 통일부

2000년 10월

홍순경 태국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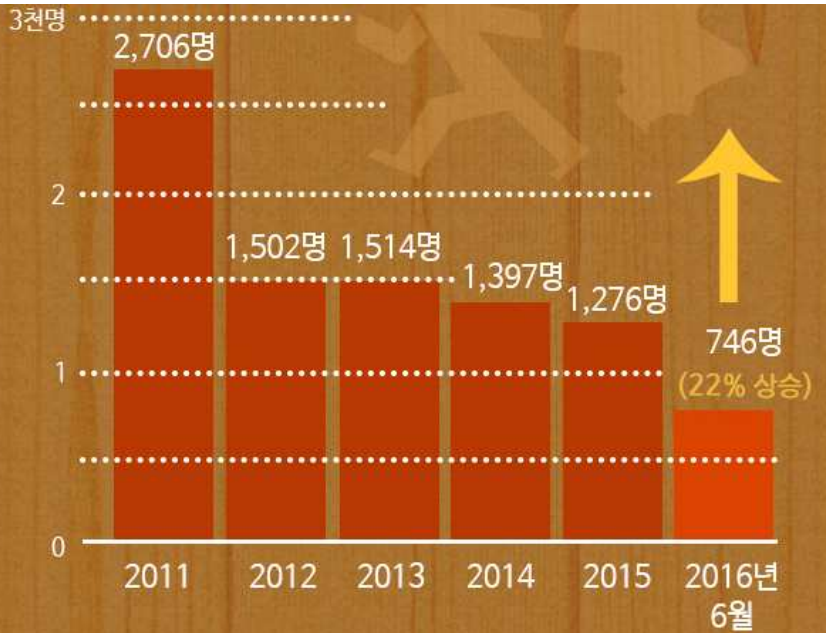
태국주재 북한대사관에 근무하다 일가족 모두 데리고 입국. 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2001년 6월

장길수 가족, 중국 외교 공관 통해 탈북

장길수 가족 7명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실에 들어가 한국 망명 요청



2012년 10월

GOP초소까지 걸어 들어온 '노크 귀순'

한 북한군 병사가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우리군 GOP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중국 닝보시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

2016년 8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역태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으로 주목,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

사진출처 : e영상역사관, 연합뉴스, 북한민주화위원회, 통일부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 잡는 일, 그 자체가 제 삶”

독도문제 해법 찾는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의 포털사이트에 호사카 유지란 이름을 넣으면 저에 대한 욕설 200~300개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오히려 옹호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진실을 말 하고자 하는 제 의도를 제대로 읽는 거죠.” 호사카 유지 교수(保坂祐二,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는 일본 도쿄대학 시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접하면서 한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88년 한국에 와서 연구활동을 계속하다가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저서와 논문을 집필해 온 그는 지난 8월 또 하나의 책 ‘독도, 1500년의 역사’를 출간했다.

Q.

‘독도, 1500년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속 한국의 진로를 이야기하다

원래 분량은 출판된 책의 3배 정도였는데, 출판사 측과 협의하면서 많이 줄였고 특히 독자를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책에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당시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1904년 독도라는 지명과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를 전달한 비밀 서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점,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해법 등을 담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도가 한때 일본에 편입됐던 1905년 상황과 현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18세기에 대륙세력(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 영국)의 지정학적인 싸움이 있었고,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했는데,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미국과 맞서는 신냉전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세력에 부딪히는 국가가 한국인 거죠. 북한은 대륙세력 측에 있고, 한국은 사실상 해양세력화가 된 곳이니깐요. 다만 한국이 당시처럼 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한국은 알아야 해요. 독도를 단지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어요. 1905년엔 독도가 일본에 넘어갔지만 지금은 반대로 지정학적으로 독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완전히 한국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표기된 1795년 일본의 고지도





Q.

‘독도는 한국 땅’이지만 한국 국민도, 정부 외교도 논리로 무장하라!

그렇다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일관계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처는 한일관계를 단순히 대결구도로만 치달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일본 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본은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외교적인 제스처를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대결자세로 임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린 게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도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독도는 분명 한국 영토이고, 그것을 어떻게 납득시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책 속에 담아봤어요.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 법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토대 위에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이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싸울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을 교육해야 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Q.

일본말로, 일본사람들에게 일본 논리가 왜곡됐다는 것을 알리다

한 달 전쯤 ‘우리역사 독도(2009년, 책문)’를 일본어로 번역한 ‘독도·다케시마의 일한사’도 일본에서 출간했어요. 이 책은 19세기까지의 한일관계사 속에서 독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실을 사료로 증명하고 있죠. 한일관계를 확장해 한미일 관계사를 다룬 속편도 일본에서 기획하고 있고요. 이는 일본인들에게 한국 측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독도 논리를 거의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독도와 동아시아(dokdoandeastasia.com)’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한 달에 5~6회 정도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도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나 어용학자들의 논리가 매우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일본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앞으로도 출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Q.

일본 포털사이트에 ‘호사카 유지’ 치면 욕설 200~300개 쫓은 기본

일본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이 재미있어요. 일부 국민들은 비밀스러운



회의에 저를 초청해 강사료를 줘 가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거든요. 두렵거나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오히려 학자로서 행복을 느껴요. 그게 제 삶이기 때문에, 삶이 여기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독도 외에도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의 문서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재 반환을 포함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던 다양한 역사 문제들이 숨어있는 걸 봤어요. 저는 이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 아닌 정확한 사실들을 알리고 싶어요. 일본인, 미국인, 한국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가장 기뻐할 때요? 바로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죠. 현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저는 그것이 단순히 미군만의 견해일 뿐이란 걸 밝혀냈죠. 그건 일본이 자랑하는 '필살기'였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굉장히 기뻐요. '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 유지 교수가 운영 중인 독도와 동아시아 (dokdoandeastasia.com) 사이트

Q.

위안부 문제 '비즈니스'라고 여겼던 일본인들 놀라... 정확한 사죄로 마무리 해야

위안부 문제 역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일본인들 역시 '비즈니스 아니냐'는 식으로 여겨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오판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로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죽기 전에 꼭 보고픈 남북통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



통일은 한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1989년에 독일이 통일 되면서 구소련의 붕괴가 시작된 걸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자신이 소련처럼 되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했었어요. 냉전은 유럽과 미소간 냉전이 끝난 거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남북은 대결구도를 먼저 종식시키는 협정 등을 모색한 뒤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되 정확히 한국의 플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적, 인적 교류를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소프트랜딩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요. 한반도만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갑자기 결정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분들 역시 세계사나 독일의 통일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넓은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사는 동안 꼭 통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통일로 인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통일은 제2의 광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글.사진 / 기자회견>



권태오 사무처장과 함께 한 통일 대화

통일열정과 건강한 안보관을 지닌 우리 청년들의 힘을 믿습니다!

세찬 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비록 지금 남북관계가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통일에 대한 열정과 균형 잡힌 시각, 건강한 안보관을 지닌 청년들이 있기에, 통일은 마치 기적과 같이 이 땅에 가만히 내려앉을 것이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청년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도 분명 통일의 결실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테다.

10월 토크 참가자

-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 안제노 통일멘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허정필 (동국대 박사과정 북한학 전공)
- 황주희 (고려대 박사과정, 웹진자문단)
- 정수나 (한국외대 석사과정, 웹진 자문단)
- 지철호 (NAUH 간사, 탈북청년, 북한인권활동가)
- 조미영 (성균관대 석사과정, 탈북청년, 국민통일방송 진행)
- 채가혜 (모델 겸 방송진행자, 웹진자문단)

권태오 : 최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부 정책과는 접근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문의 뿌리는 대부분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는 강대국의 논리로 정리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에 대한 시각은 강대국의 시각 보다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개성공단을 열었을 때는 북한 핵심힘이 없던 시절이에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도 하지 않았고 전술핵도 철수시키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안정된 분위기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5차에 이르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힘 국가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지도부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명한 데도, 중단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갈수록 고도화·정밀화되어가기 때문이에요. 마하 8이상의 장거리 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사일을 잡을 수 있는 건 사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장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사정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뜨지 않는 한 공중 전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UN군의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괌·일본의 미군기지에서나 폭격을 띄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북한의 무기가 바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 뿐 아니라 그 범위가 태평양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는 일종의 '방범망'이라고 보면 돼요. 내 가정을 지킬 최소한의 방범망을 옆집에서 빌려다 설치한 것입니다.



역사 안보 경제 외교 등 넓은 시각으로 통일문제 바라보아야

권태오 : 통일문제는 북한 한 곳만 들여다봐서 안 돼요. 역사, 안보, 경제, 문화, 주변 각국의 외교정책까지 넓게 봐야 해요. 어느 한쪽만 보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기는 훨씬 쉽겠지만 이는 무책임한 일이지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 해요.

안제노 :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통일에 대해 큰 포부를 가졌지만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른바, 안보에 방점이 찍히게 됐어요. 개성공단 중단은 그동안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안보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황주희 :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상대이지만 동시에 주적인 존재예요. 그러다보니 통일을 강조하면 안보관이 약해지는 것만 같고, 반대로 안보관이 강해지면 통일이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공존하는 거죠. 이러한 프레임을 깨는 건 강한 안보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정필 : 2006년 호주유학 때 북핵실험 기사가 현지 신문 1면에 나왔어요. 주변에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주식시장만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주식시장조차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다보니 위협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정수나 :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남한과 북한을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이 환경에 너무 익숙한 거죠.

권태오 : '삼시세끼'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 마당 울타리 안의 오리새끼가 처음에는 강아지를 피해 뱅글뱅글 돌면서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는 강아지가 오거나 말거나 무관심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위태로운 장면인데 점차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미영(탈북) : 북한은 항상 전쟁준비를 해요. 15살 때 군사체험을 하고, 일반 학생들은 비상재난경보가 울리면 수업을 듣다가도 방공호에 숨죠. 북한 도발은 주민 결집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반면

우리 국민들은 평소 전쟁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사드배치와 같이 안보 관련 정책의 경우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철호(탈북) : 최근 한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미리 지진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는데, 왜 전쟁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의 관심이 너무 소홀하던 생각이 들어요.

안제노 : 안보문제는 통일부문과 같이 국가의 존속과 미래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안보란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들인 국민, 주권, 영토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통일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유지와 미래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주역이 바로 청년세대이기 때문이죠.



정수나 : 청년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취업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웹툰과 영화 등으로 국민들에게 통일과 정책 알릴 것

권태오 : 통일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저도 궁금해요. 독일이나 예멘, 베트남의 모습과는 분명 다를 테니까요. 한반도라는 섬이 대륙으로 연결돼 유라시아 철도가 다니고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GDP가 확장되는 등 수많은 분석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세상일까, 내가 거기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어떤 장면일지 궁금하더라고요.



허정필 : 현재 청년세대를 가리켜 '결혼과 아이, 집, 취업까지 포기한 4포세대'라고 하지만 통일은 청년들에게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1970년대에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통일이 되면 제2의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에 대한 미래상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채가혜 : 대부분의 친구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적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통일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실마리도 통일에서 찾을 수 있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게 돼요. 육로를 통해 유럽까지 간다니 상상만 해도 설레요.

권태오 : 각종 통일 혜택을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나열하지 않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웹진 'e-행복한 통일'의 웹툰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처럼 통일의 장점을 만화로 표현한 웹툰집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남남북녀가 만나서 결혼한 뒤 평양지사로 발령받아 아이들을 평양에서 교육시키고, 아이들과 대동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장면, 명절마다 광주 시택이나 함흥 친정에 가고, 여름·겨울에는 기차로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 하남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상을 보여준다면 영화 '명량'이나 '밀정', '덕혜옹주'가 역사를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알려듯이 국민들에게 통일시대상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제노 : 그간 웹진을 진행해 오면서 웹툰 기획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통일 이후 미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거든요. 강연을 할 때도 웹툰을 통해 직접 통일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시끄럽고 산만하던 아이들도 금세 집중하곤 해요. 그런 단편 단편이 모여서 종합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지면 통일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태오 : 평소 웹진을 보면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통일 웹툰에 대한 고민으로 요새 만화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웃음).

젊은이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이 중요, 다함께 노력해야

권태오 :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게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여기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황주희 : 얼마 전 모 기관에서 실시한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함께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나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에 '통일' 과목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통일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이벤트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아울러 북한인권 등을 주제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의 운동을 펼쳐, 이 이벤트가 세계로 확산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정수나 : 청년세대는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캠프, 북한관, 백일장, 공연 등으로 기획된 축제 형태의 통일 교육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계노 : 얼마 전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에 13개의 청년 통일운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는데, 회의 열기가 고조되더니 나중에는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채가혜 씨의 경우 현재 전국을 순회하며 '2030 차 한 잔에 담기 통일이야기'와 같은 청년 통일대회사 강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호응이 매우 좋아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채가혜 :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지만 그런 강연을 통해 제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많은 청년들과 통일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도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필수 수강과목이 개설되어 많은 청년들이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토크나 노래(랩), SNS 등을 통해 통일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미영 : 강연에서 탈북민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마주해본 것과 말로만 전해듣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또 요즘 탈북민 중 VJ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보관 등을 정확히 아는 친구가 방송을 한다면 젊은 친구들에게 통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철호 : 지난 여름 태국에 난민봉사를 다녀왔는데, 이들의 열악한 삶을 보면서 한국에서 탈북민임을 숨기려 했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접고 자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해요.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통일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권태오 : 탈북청년들이 남한에 적응하고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들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

다. 저도 어릴적 가정형편이 어려워 검정고시를 봐야 했는데,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참고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안제노 : 탈북청년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배려와 함께 개개인 스스로의 노력 역시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처장님도 우리 청년들의 힘을 믿으시죠?

권태오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 정리해서 통일정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세대는 광복을 이뤘지만 조국 분단을 허용했고, 우리 세대는 경제개발을 이뤘지만 평화통일을 이루진 못했어요. 이제 분단된 국가를 통일시켜서 하나된 국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과업에 청년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통일문제에 청년과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를 검토하고 있으니, 완전히 충족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기자회견 / 사진, 신영민〉

“통일을 위해 오늘 우리청년들임!”



황주희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역사와 세계 앞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통일 준비는 3.1운동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태극기를 흔들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같은 작은 노력이 모여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허정필

남북간 상이한 이념 속에서 한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체육과 같이 탈정치적 영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를 통해 차가운 장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청년들이 남과 북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미영

대북라디오 국민통일방송에서 '조미영의 청춘통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탈북민이라 이 방송이 북한에서 몰래 듣고 계실 그분들에게 한줄기 빛이고 희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다양한 정보들과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외국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전쟁과 분단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해주는 걸 보고 통일, 안보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2년 전부터 웹진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봉사하며, 젊은 세대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철호

통일만큼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소통과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서로를 이해할 때 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전하고 싶어요.



채가혜

몇 년 전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통일이 되면 자전거 타고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순례'를 꼭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면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계시던 북한 땅에서 꼭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무료 공연 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싶어요.

★북한의 맥주, 그리고 상업광고★

서울신문 문경근 기자



지난 8월 북한 평양에서 맥주 축제가 열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첫 맥주 축제인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은 대동강변에 떠있는 유람선 '대동강호'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었다. 축전이 열리던 대동강호와 대동강변 부두는 특색 있는 조명과 대형 전광판으로 화려하게 단장을 했다.

개막식에는 평양 주민들과 맥주 애호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 해외 동포들이 참석해 북적였다. 이 축제에서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흰쌀맥주들과 흑맥주 등 여러 가지 맥주가 출품됐으며, 축제 시작 후 2시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최영남 인민봉사총국장은 "조선(북한)의 맥주 생산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으나 여러 맥주 공장에서 출품하는 국내산 맥주들은 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옥토버페스트'를 흉내낸 '대동강맥주축제'

군 복장과 비슷한 흰 상의와 파란 하의, 파란 모자를 착용한 봉사원들이 대동강맥주를 나르고, 탁자에는 프레첼 과자, 완두콩 등 간단한 안주와 양꼬치구이, 매운맛 닭고기 튀김이 제공됐다. 남한에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치맥(치킨과 맥주)'이 평양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이번 축제는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계속됐다. 모두의 축제가 아닌 일부를 위한 평양대동강맥주축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 최고위층 탈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해외에 북한 정권의 건재함을 알리는 '쇼'를 했다.

대동강맥주는 봉화맥주, 룡성맥주, 금강맥주, 평양맥주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 맥주로 꼽힌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북한 대동강맥주가 한국 맥주보다 맛이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대동강맥주공장

▲ 대동강맥주공장 독일식 설비 도입

그렇다면 북한의 대표 맥주 중 하나인 대동강맥주는 어떤 맛일까. 북한은 대동강맥주를 ‘동방 제일의 맥주’라고 자부한다. 2001년 1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동에 공장이 건설됐고, 2002년 6월 완공했다. ‘대동강맥주공장’이라는 이름도 김정일이 명명했으며 2008년 4월 ‘대동강맥주’ 상표 도안도 결정했다.



▲ 평양 대동강맥주축제 즐기는 북한 주민들

북한의 축제 소식은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중국,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북한이 이처럼 맥주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대동강맥주의 인지도를 높여 새로운 외화벌이 상품으로 띄우려는 것과 동시에, 대형 유람선 및 평양 풍경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를 뒷받침해듯 조선중앙TV는 “대동강맥주축전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짓부시며(짓부수며),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문명 강국을 보란 듯이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낙관에 넘친 생활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상업광고를 통해 대동강맥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금기시했던 상업광고까지 나선 북한

“연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맛! 무더운 여름철은 물론 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대중음료 대동강맥주!”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2013년 ‘소문난 청량음료 대동강맥주’라는 제목의 2분 47초짜리 홍보영상에서 대동강맥주가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대동강 지구의 무공해 지하수, 백과를 무르익히는 곡창지대 재령옥토에 뿌리박고 자란 기름진 보리와 흰 쌀, 천혜산지 양강 땅의 호프를 주원료로 하고 있어 그 맛이 별미”라고 소개했다.

영상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유롭게 생맥주를 즐기는 장면을 배경으로 “인민 생활향상을 제일가는 목표로 내세우는 당의 은정 속에 인민들과 친숙해진 대동강맥주의 독특한 맛은 끊임없이 개선될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마무리됐다.



▲ 북한TV,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광고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늘어나는 상업광고

북한이 대동강맥주 홍보 영상을 처음으로 띄운 것은 지난 2009년 7월 2일 조선중앙TV에서 대동강맥주 광고를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토록 자본주의의 부조리함을 고집던 북한이 ‘자본주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상업광고’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동강맥주’ 외에도 다양한 광고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 성장을 촉진하는 ‘키 크는 약’ 광고에는 약 병 옆에 만화로 목이 긴 기린 그림을 그려 넣었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약 광고에서는 금속제 반지 속에 보라색 보석이 들어 있다고 소개한다. 자동차 수리, 안드로이드 게임, 북한계 휴대폰에 프로그램 탑재와 같은 다른 광고도 등장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원 광고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평양신문은 태권도 교육기관인 ‘태권도 전당’이 낸 것으로 보이는 ‘2016년도 태권도 학원 학생 모집’ 광고를 실었다. 우리 고등학교 격인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다른 기사와 다른 서체를 쓰는 등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였다. 평양신문은 노동당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등과 달리 평양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달한다.

경기장 광고비 4만 달러까지 치솟아

영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는 남북한 간의 경험과 관계된 것들이었지만, 최근 광고는 북한인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에는 한국의 통일교와 북한 정부 사이에 공동으로 설립한 평화자동차의 대형 광고판

이 있었고, 남북한 관계가 원만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됐을 당시 북한 TV에 방영됐던 대동강맥주 광고와 같이 한국과 연결 고리가 있는 상황에서만 등장했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북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축구 경기장 안에 북한 기업의 광고가 허용됐으며,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에는 광고판 광고비가 4만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경기장 안의 광고는 주로 중국과 협약을 한 기업들이 차지했다. 예를 들어 보통강백화점이나 철리마와 같은 광고판이 경기장 안에 등장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경기를 중계하면서 개성 고려인삼, 평양 건재공장, 조선금강그룹 등 북한기업 광고판을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다. 광고판 중에는 '맑은 아침'처럼 그동안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업체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올 들어서 평양 마라톤 대회를 할 때 고려인삼무역회사가 스폰서로 광고가 되기도 했으며, 당시 광고판 하나에 1000유로를 받기도 했다.



▲ 2018 월드컵 2차 예선경기에서 개성고려인삼 등 북한 후원기업들의 광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시장화 추세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케팅의 핵심인 광고는 피할 수 없는 경영의 도구”라고 진단했다.

오후부터는 이웃 친지들이 집으로 놀러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명절 때 노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주로 저녁이 되면 수건돌리기 게임과 같은 오락회를 하거나 기타를 치면서 남한 노래를 몰래 부르는 ‘신식 남자’가 되기도 하며,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용기를 내보기도 하는 하루이다. 혹은 가까운 친구들끼리 북한의 사회상에 대해 푸념을 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서로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는 하루이기도 했다. 또한 장마당에서 사놀기는 했지만 입을 수 없던 청바지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집에서 몰래 친구들끼리 입어보며 자랑할 수도 있었던 편한 시간이었다.

북한에서 추석은 차례상에 올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전날에는 부실한 음식을 먹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 필자가 북한에 있었다면 진땀을 흘리며 음식 재료를 찾아 장마당으로, 개인 가정집으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 푼도 안 깎아주는 마트, '린색하다' 했죠

인색하다



한 북한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정애 아주머니(함경북도 온성)와 옥선 아주머니(함경북도 무산)는 2011년에 직행으로 남한에 왔다. 둘 다 20대 후반의 자녀를 둔 데다, 남한에 온 시기가 비슷해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산다. '남한에 오니 아파트도 크고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삶, 입에 맞지 않은 음식,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 마트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50~60년을 북한에서 살아온 만큼 생활습관을 고치기도 쉽지 않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말 못할 정도로 크다면, 남한에 함께 온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주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고 있는 두 분의 삶이 아름답다.

“오백 원이라도 깎아주면 맘이 후해져서 사게 된단 말예요”

북한사람들이 한국의 편의점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를 접할 때 대부분 느끼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물건 이름을 잘 모른다는 것과 가격을 흥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건 이름이야 좀 몰라도 직접 들고 가서 '이거 주세요'라며 말하면 되니까 괜찮지만, 북한의 장마당에서처럼 물건 값을 깎는 건 절대 안 통해 '린색하다'고 느낀다.

“북한 상점은 상품이 별로 없다 보니 장마당에 가서 사는데, 고기든 채소든 무슨개(아무거)나 다 흥정을 해요. 내가 얼마밖에 없으니까 깎아 달라고 하면 해주거든. 아무리 비싸도 사람 맘이 오백 원, 백 원이라도 깎아주면 맘이 후해져서 사게 된단 말예요.”

남한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많았는데 '가격정찰제'라는게 자리 잡으면서 전통시장이나 개인상점 외에는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곳이 대부분이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장점도 있다며 설득해 봤지만 정애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북한에서 뱀 생활이 익숙하다보니 자꾸 깎게 된다'고 말한다. 반면 옥선 아주머니는 '한국 마트에 가면 물건이 찾기 쉽게 정리돼 있고 영수증이 있어서 반품하기도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찰 초기 냉장고에 대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집안은 더운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시원하다고 느낀 옥선 아주머니는 자주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어~ 시원하다~'면서 냉기를 만끽(?)하곤 했다. 그 때문인지 덜컥 고장 나버린 냉장고, 새 냉장고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할인마트에 가서 구경을 했다.

“막상 가보니 너무 맛있는 냉장고가 많더라고요. 그땐 가격표 볼 줄도 몰랐으니까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세상에, 너무 비싼 거예요. 가슴에서 털링 돌이 떨어졌죠. 오늘은 그냥 보러 왔는데 후에 다시 온다고 살랑시(북한말, 슬그머니) 말하면서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물어만



보고 안 사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옷을 막 입었다 벗었다 해도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내(나) 혼자 보고 싶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막 따라다니고. 그때 고장난 줄 알았던 냉장고는 한 며칠 꺼두니까 다시 잘 돌아가서 살 필요는 없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는 북한의 TV 프로그램?

정애 아주머니와 옥선 아주머니는 각각 북한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20대 중반의 아들, 딸들과 남한으로 넘어와 함께 지내고 있다. 자녀들 모두 애 먹이거나 나쁜 길을 가는 경우는 없다고 자랑하는 두 아주머니. 그녀들 역시 탈북민 모임조차 잘 나가지 않고 여행도 거의 다녀본 곳 없이 직장과 집만 오가며 일을 한다. 퇴근 후 잠깐 보는 TV가 유일한 소일거리. 그런데 몇몇 드라마나 뉴스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없는 현실을 만들어서 도리어 저런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가르쳐주는) 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죄지는 사람이 값을 받는 건 꼭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남자들이 막 바람 쓰고(바람피우고), 뉴스에도 보면 온갖 범죄자들이 나오는데 ‘저런 거 따라하게 생겼네?’ 하고 생각한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TV에 나쁜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애 아주머니 뿐 아니라 북한에서 직행으로 온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람 사는 곳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데도, 북한에서는 TV나 신문에 부정적인 보도가 대부분 걸러지다 보니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남한 TV를 보고 ‘방탕한 곳’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거는 있지만 방탕하게 그런 건 없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긴 했지만, “북한에서는 좋은 거, 잘한 거만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모르니까...”라면서 말을 흐리기도 했다.



“아무래도 내 자식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옥선 아주머니의 아들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인선생을 맞차 가지고(개인교습을 통해) 텔레비전 수리 기술을 배웠다, 탈북 후 전기공학대에 진학했지만 따라가기 쉽지 않아 휴학을 한 상태다.

“북한은 수리점이 없으니 무조건 돈 주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부르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장 나면 새것 사서 쓰니까 그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다른 학교 합격통지를 받아놓은 아들은 백화점에서 9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 게다가 연애를 막 시작했는데 그 아가씨가 옥선 아주머니 맘에 꼭 든단다.

“북한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한에 왔으니 여기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이번에 항공대학, 철도대학에 원서를 냈기에 아들에게 ‘너 그런 대학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고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알려줬대요. 양가 집안끼리도 서로 알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데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애 아주머니 역시 한국 사위를 얻고 싶다고 했다.

“몇 년 전에 한국 남자를 만났었는데, 우리 딸은 성질이 칼칼하고 남자는 좀 공한 성격이다 보니 성질(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대요. 그 뒤로는 아직까지 없는 데, 싸위(사위)를 얻자면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 여자 귀하게 생각해주는 남자, 그저 재산이 없어도 부지런히 벌어가면서 사는 거 말고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사위가 인기가 많은지 물었더니 제대군인, 대학생, 군관, 사무직을 꼽는다. 반면 안 좋은 사위감은 술 먹은 사람, 농장일 하는 사람이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농장에 안 보내려고 해요. 힘들고 쪼들리고, 자식까지 대대로 농장에 가야 하니까요.”

머느리감의 경우 교원이나 유치원 교양원(교사) 등 몇몇 전문직 외에는 대학을 나와도 마땅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보다는 됴됨이를 많이 본

다고 한다.

“높은 데는 바라 못 봐요(못 바라봐요). 같은 급을 만나죠. 안전원이면 보위부 사람들끼리 결혼하거든요. 우린 그저 착하고 부모 잘 모시고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죠.”

정애아주머니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한 다음’ 나중에 두 딸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손주를 돌봐주는 게 노후 계획이란다. 그런 정애아주머니를 부럽게 바라보는 옥선아주머니.

“딸이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북한에선 아들이진 부모들은 ‘국제고아’라고 했어요. 장가가면 여자한테 다 주니까, 며느리 잘못 얻으면 국수조리를 쓴다(구박 받는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옥선아주머니는 “아들 하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든 거 다 주고 며느리도 딸같이 잘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옥선아주머니는 “대한민국이 워낙 여자 코 세우는(여자를 우대하는) 곳이라 아들을 자꾸 시킬까봐 걱정은 되지만, 밖에 나가 일 안해도 좋으니 며느리는 깨끗하게 집안일만 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기자희>

나의 살던 고향은

술과 엮, 왕재산 명소까지 자랑거리 가득한 온성

함경북도 온성군은 석탄 주산지여서 화력 좋은 갈탄을 이용한 특산물들이 많다고 한다. ‘구들이 탈 정도로’ 하루 내내 고아 내야 하는 옥수수엮(깡엮)과 증류한 뒤 희석해서 파는 온성술(옥수수술)이 대표적인 특산물. 단단해서 가위와 망치를 대고 깨먹다는 엮도 맛있지만, 온성술은 평양에도 올라갈 정도로 이름이 있다. 인근 풍리지역의 술은 농촌으로 많이 유통되지만 온성술은 주로 도회지나 군부대 수요가 많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다.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역시 갈탄이 없으면 만들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부를 직접 만들고 건조해서 칼로 자른 뒤 기름에 튀겼다가 밥을 넣어 양념해서 먹는 두부밥의 비결은 초두부를 만들 때 대개 15분 정도 익히는데, 갈탄을 이용한 화력 좋은 불에서 5~8분가량 열른 끓여내는 것이 비법. 그렇게 하면 오래 뒤도 딱딱하게 굳지 않고 부드러운 두부밥을 만들 수 있다.

온성의 명소로는 혁명박물관과 탐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왕재산이 있다. 박물관도 유명하지만 유독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아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등 외국인들도 자주 찾을 정도라고 한다. 저녁 늦도록 일하고 아침 일찍 나와도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개운하다는 왕재산의 가을 경치가 자못 궁금해진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문화로 남북한 주민 마음에 '통일의 문' 연다!

'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 민주평통 토크콘서트 개최



“문화배달부가 되어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난 9월 30일(금) 서울 강남구 소재 백암아트홀에서 열린 2016 민주평통 통일문화 토크콘서트(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는 스포츠와 만화, 음식, 취업, 종교 등의 주제가 모두 '통일'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문화의 힘'을 보여줬다. 60분이라는 짧은 토크시간, 패널들은 남북한의 문화 각 분야를 대화로 풀어냈으며, 관람석에서는 '아!' 하는 감탄사들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는 북한의 문화 뿐 아니라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 문화를 접한 경험, 그리고 적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시간이 되었다.



남북한 8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 문화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중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김형석 통일부 차관, 라중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서울지역 각 협의회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건,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었을 때 북한 2,500만 동포들과 함께한다는 인식, 문화를 통한 남북교류가 바로 통일의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통일콘서트 문화공연은 문화를 통해 남북한 8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모색하기 위함이고, 이는 곧 민주평통의 통일운동, 통일 플뿌리운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라중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 김형석 통일부 차관

라중역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남남갈등이라는 외우내환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문화밖에 없다"며,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공감대를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한 뒤 "문화를 배달해서 통일이라는 음식을 맛있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배달부가 되자"고 말했다. 김형석 통일부차관은 "통일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민주평통 통일콘서트가 국민에게 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축사의 말을 건넸다.

취업·종교·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토크콘서트

라중역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크콘서트는 강동완 동아대학교수와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축구선수 심서연(2013년 동아시아안컵 여자축구 국가대표 주장), 최성국 탈북 웹툰 작가, 한선희 북한음식점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먼저 강동완 동아대학교수는 PPT 발표를 통해 북한 사람들과 탈북민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문화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중국 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통일을 간절히 원했고, 북한주민 100명 중 30명 이상이 남한 영상물을 접했을 정도로 북한에 한류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며 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심서연 축구선수가 '2013년 동아시아안컵'에서 북한 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울고 웃었던 당시 경기 경험을 이야기했다. 심 선수는 "동아시아안컵 대회에서 북한의 우승이 확정된 뒤 남한과 일본 간 2~3위전을 치르던 상황이었었는데, 북한 선수들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남한을 응원해 해줬고, 남한이 일본을 꺾자 한마음이 되어 서로 울면서 축하해 줬다"고 당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북한의 한 관광기업소에서 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탈북, 남한에서 탈북민들의 취업 상담을 맡고 있는 송지영 씨는 직업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겪는 취업 관련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탈북민들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부딪혀가면서 계속 노력해야 하고, 대한민국 역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 강동완 동아대학교수



▲ 심서연 여자축구 선수



▲ 송지영 전 아나운서



▲ 최성국 탈북 웹툰작가



▲ 한선희 북한음식점 대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는 웹툰과 북한 음식

한편 탈북 7년차로 네이버 웹툰에 '로동신문'을 연재중인 최성국 작가는 '문화에 나온 연애담이 실제 자신의 얘기인지' 묻는 사회자의 말에 '사실'이라고 밝히며 웃었다. 최성국 작가는 "남북한 간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별 것 아닌 벽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만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웹툰을 연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에 관심이 없었는데 웹툰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댓글을 소개하며 '공감'이 인기의 비결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작년에 탈북해 지금은 부산에서 북한 음식 가게를 운영하는 한선희 씨는 장사 초기만 해도 남한 사람들의 입에 북한 음식이 맞지 않아 적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입맛 하나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냐'며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끝에 퓨전 두부밥인 '두부버거' 등의 음식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북한에서 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냐'는 말에 '떡볶이를 해 먹어본 적이 있고, 한국의 김이 유명해서 먹어봤는데 역시 너무 맛있었다'고 말했다.



▲ 최성국 작가의 웹툰 로동심문

토크 말미에 최성국 작가는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북한에서는 이미 시장경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입되는 문화는 호기심을 넘어 주민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며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지영 전 아나운서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자신도 탈북을 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을 한류 등에 갖게 한다면 현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라중역 위원장은 "북한 청년들은 단순히 장마당을 따라다니는데 그치지 않고 통일을 염원하며 자유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소양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만 명의 탈북민, 식구들을 포함해 10만 명에 대해 많이 신경써주시고, 우리 문화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이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열린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2부, 시와 콩트, 음악공연으로 하나 되는 문화의 장

2부 문화공연은 이채민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의 통일시 '아버지의 봄' 낭송으로 막이 올랐다. '아버지의 봄'은 함경북도 길주군이 고향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로, 시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전해 들으면서,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봄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놓고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분명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말해 관객들의 마음을 적셨다.



▲ 통일시 '아버지의 봄' 낭송



콩트 '서울나들이' ▶

다음 순서로 통일이 된 후 북한 예술인들이 백암 아트홀로 공연을 하러 가며 겪는 상황을 가정해 극으로 보여준 콩트 '서울나들이(김현민, 김신영)'가 무대에 올랐고, 성악가 김진과 강민성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행복을 주는 사람', 권설경 기타 연주자의 '아름다운 강산', 탈

북가수 김정원의 '인연', '아름다운 나라' 등의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끝으로 주요 내빈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관객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2시간여에 걸친 행사가 막을 내렸다.



◀ 성악가 김진과 강민성



◀ 권설경 기타 연주자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참여 소감

통일에 대한 아쉬움과 감동 교차한 토크콘서트



박서미(평양 만수대 예술단장, 탈북민)

오늘 토크콘서트와 같이 탈북민들이 참가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심서연 선수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네요. 같은 동포라는 느낌으로 선수단이 만나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 '혈(血)'은 속일 수가 없구나,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감동이 있었어요.

임정숙(은평구 여성분과위원장)

평소 탈북민들의 일자리 매칭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업도 하나의 문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컨셉을 적절히 짚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웹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정영철(통일문화연구원, 행사준비)

민주평통과 함께 이번 공연을 준비했어요. 문화는 통일의 초석, 디딤돌입니다. 정치가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문화로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시켜나가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 행사가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 · 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개최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 등 주제로 토론 펼쳐



민주평통은 지난 9월 21일(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부 순서에서 사회·경제·인권·안보 분야로 나눠 임수진(서울대), 김영지(이화여대), 김덕우(동국대), 조평세(고려대) 학생이 각각 주제발표한 뒤 세션별 토론이 이뤄졌고, 2부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 및 통일준비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경청한 권태오 사무처장은 대학원생들에게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배경과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미래 통일·대북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특수한 입장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강대국의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

을 당부했다. 또한 유호열 수석부회장은 통일·대북 문제에 있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낙담하거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신행 엔진으로서 자부심과 비전, 용기를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하반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실시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8월 20일 제주지역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역량을 높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는 현재 경남지역회의(9월 22~23일)와 경기 양평군·강원 원주시협의회(9월 27일), 충북지역회의(9월 29~30일) 연수 등이 진행됐으며, 부산·광주지역회의(10월 18일), 대전(10월 20일), 경북(11월 10~11일), 전북(11월 15일), 대구지역회의(12월 9일)를 비롯해 각 시군별로 총 22차례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22~23일에는 경남지역 자문위원 연수가 통영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외교·안보 정책방향(이정태 경북대학교 교수)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이태운 국방대학교 교수) 강의 등 지역의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토크 콘서트'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민주평통 동대문구협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음악회' 열어



민주평통 서울 동대문구협의회(회장 오광수)는 지난 9월 3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배봉산근린공원에서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음악회는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한데 모으고, 한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열린 행사로, 평화통일 염원 가곡 경시대회와 통일기원 4행시 작성, 가을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식전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동대문어린이 합창단 '아름다운 나라'로 오프닝 공연을 시작한 '2016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이순화(자문위원)의 '그리운 금강산' 등 공연, 명창 김금숙 등의 공연이 있었으며 북한전통문화예술단의 난타공연이 있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권태오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하나 되면 난관을 헤치고 도약을 이루지만, 분열하면 큰 시련에 처한다"며, "다양한 악기와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우리도 지역과 세대, 계층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경북 경산시협의회)



▲ 제17기 자문위원 대상 통일워크숍 (경남 진주시협의회)



▲ 제29차 부산평화통일포럼 (부산지역회의)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는 9월 6일 경산시청에서 여성자문위원, 여성단체 회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27일 ~31일 베트남 다낭 일원에서 제17기 자문위원 대상 통일워크숍을 개최, 베트남과 한반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핵문제의 이해를 도왔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부산평화통일포럼(대표 이영숙, 연구위원장 김종한)과 함께 9월 9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제29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을 열었고, 충남 태안군협의회(회장 강철민)는 8월 25일 주찬양 통일강사를 초청해 150여 명 지역주민, 민족통일회원 및 시군 협의회장 참석한 가운데 '2016 지역주민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 지역주민 통일안보 강연회 (충남 태안군협의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군위군협의회)



▲ 통일시대시민교실 (경북 청도군협의회)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9월 8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고,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7일 청도군노인복지회관에서 군민과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을지연습 격려 방문



▼ 을지연습 격려 방문 (충남 공주시협의회)



▲ 을지연습 격려 방문 (강원 횡성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은 8월 23일 '2016 을지연습'기간 중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한 횡성군청, 횡성경찰서, 횡성소방서, 횡성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8월 23일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공주시청 대회의실을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통일문화 확산

▼ 남북평화통일 기원 시민과 함께하는 두발로 Day (경기 의왕시협의회)



▲ 판문점 및 DMZ평화기행 (경북 상주시협의회)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9월 10일 대행기관장인 김성제 의왕시장, 기길운 의왕시의장 및 시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인사와 공무원, 지역주민과 함께 '남북평화통일 기원 시민과 함께하는 두발로 Day' 행사를 열었다.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9월 성신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사, 언론인 등과 함께하는 '판문점 및 DMZ평화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 전·현직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통통(統通) 축구대회 (서울지역회의)

▼ 2016년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관람 서포터즈 (부산 기장군협의회)



▲ 군민 통일공감 통일엽서쓰기 (충남 청양군협의회)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설태환)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9월 3일 '전·현직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통통(統通) 축구대회'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했고,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3~5일 열린 '2016년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예선대회(베네수엘라 전)와 슈퍼라운드 및 결승전(7~11일)에 지정 관람 서포터즈로 참여했다.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8월 27일 제17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장에서 '군민 통일공감 통일엽서쓰기' 행사를 열었다.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9월 1일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역 등에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현장견학 (경기 이천시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 청소년 평화통일백일장 (충남 서산시협의회)
 ◀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Smart-ggi 축제 (대구 달성군협의회)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9월 8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군내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및 내빈들과 함께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Smart-ggi 축제'를 열었고,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3일 서산중앙호수공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자 통일로! 열자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2016 청소년 평화통일백일장'을 개최했다.

▼ 멘토링 여름방학 캠프 (대구지역회의)



▼ 통일동아리 통일리더십 캠프 (전남 무안군협의회)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차숙)는 8월 20~21일 멘토 자문위원, 멘티, 멘티가족 및 또래친구, 청년위원 등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2016년 멘토링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했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9월 2~3일 경남지역 통일·안보현장으로 통일동아리 대원 및 청년 자문위원들과 함께하는 통일동아리 통일리더십 캠프를 열었다.



▲ 대학생 통일교육 (경기 광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대회 (광주 북구협의회)



▼ 업무 협약식 (충남 천안시협의회)
 ▲ 국가 및 나라사랑 함양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8.26(금) 15:00 장소 :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사무실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9월 7일 동원대학교에서 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북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의 주제로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는 9월 2일 동신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대회'를 개최했으며,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와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가졌으며,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9월 10일 불갑산 상사화 축제현장에서 영광여자중학교 학생들과 '나라사랑 통일염원 캠페인'을 개최했다.



▲ 나라사랑 통일염원 캠페인 (전남 영광군협의회)

어린이 통일교실



▲ 찾아가는 어린이 통일교실 (대구 남구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실 (제주 제주시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은 9월 20일 대동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통일교실'을 개최했고,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강덕부)는 19일 동여중, 조천중, 사대부고에 이어 제주동광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제4차 2016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안보현장 견학



▲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충북 옥천군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현장견학 (경기 광명시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9월 12일 옥천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계룡대와 현충원 등에서 '2016년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은 3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육(5.25)'을 이수한 광명고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판문점 일대에서 '201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 제주도 문화역사 탐방 (경북 구미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문화산책 (경기 용인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한가득 밤줍기 체험 및 문화 탐방 (서울 구로구협의회)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9월 3~5일 구미시협의회 여성임원진 및 구미시청과 경찰서 신변보호관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제주도 문화역사 탐방**을 다녀왔고,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9월 8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63빌딩 아쿠아플라넷 관람, 한강 유람선 승선 등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는 서울구로경찰서 (서장 홍기현)와 함께 9월 7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일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한가득 밤줍기 체험 및 문화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결연식 및 통일캠프 (울산 울주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자녀돕기 3차분 자전거 전달식 (부산 사하구협의회)



▲ 탈북청소년 명절 가정문화체험 (경기 과천시협의회)

울산 울주군협의회(회장 김달중)는 8월 21일 북한이탈청소년과 가족, 울주경찰서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결연식 및 통일캠프'를 열었고,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9월 1일 대항기관장, 북한이탈주민, 자녀, 경찰서관계자 등과 함께 리콘바이크사(대표이사 김진)의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자녀돕기 3차분 자전거 전달식을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9월 16일 추석을 맞아 과천시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안산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아이들을 자문위원 각 가정으로 초대해 '명절 가정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통일기원 추석 합동차례



▲ 2016년 북한이탈주민 합동망향제 (경기 수원시협의회)

▼ 남북통일 기원하는 추석 합동 차례 (서울 송파구협의회)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9월 2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무지개회원 등과 함께 **합동망향제**를 올렸고,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운)는 10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통일 기원 추석 합동 차례**를 지낸 뒤 선물을 증정했다.



▲ 평화통일기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강원 동해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추석합동차례 (경기 시흥시협의회)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9월 8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4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합동차례**를 지낸 뒤 북한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눴으며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한가위 한마당 축제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 한마당 (전남 여수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 (경기 평택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큰잔치 (대구 달서구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9월 8일 대구하나센터(더나은세상을 위한 공감 이사장 김병준)와 함께 대구·경산지역 북한이탈주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 의회의장 등을 초청해 '2016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큰잔치'를 열었고,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는 5일 여천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유승익)는 9월 10일 평택국제대학교 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를 열었고,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8월 23~28일 춘천달갈비막국수축제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나눔축제'를 개최했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나눔축제 (강원 춘천시협의회)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



▲ 추석맞이 행복한 통일송편만들기 나눔행사 (대전 동구협의회)



▼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행사 (서울 금천구협의회)



▲ 탈북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은 9월 9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추석맞이 행복한 통일송편만들기 나눔행사'를 열었고,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7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정병재 금천구 의회의장, 금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9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탈북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 통일송편 나누기 (대전 서구협의회)



▲ 명절음식 만들기 (충남 보령시협의회)



▲ 민주평통 통일레시피, 통일의 맛을 부탁해 (인천 연수구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9월 13일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송편과 식료품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고,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0일 김동일 대항기관장, 포럼회원, 북한이탈여성,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장한조)는 2일 '민주평통 통일레시피, 통일의 맛을 부탁해' 행사를 개최해,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남북 음식체험을 갖고 추석 명절 음식을 나눴다.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 북한이탈주민 가정 방문 위로 (충북 단양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명절맞이 위문행사 (충남 당진시협의회)



▲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대구 동구협의회)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9월 12일 추석을 맞아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한 뒤 생필품 및 식료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5일 당진경찰서에서 당진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명절맞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2일 동구 율하동 일대에서 '2016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 추석맞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경기 고양시협의회)



▼ 한가위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경북 영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경북 김천시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는 9월 9일 한벗학교(이탈주민 자녀 대안학교)에서 '추석맞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고,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11일 '한가위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를 개최했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도 13일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 추석맞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전북 완주군협의회)



▼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성품 전달 (대구 서구협의회)



▲ 추석맞이 탈북민 사랑나눔 성품전달 (부산 동래구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9월 7일 완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 추석 제수용품 준비를 위한 상품권을 전달한 뒤, 남한 정착 생활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중석)는 9일 추석을 맞아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도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 북한이탈주민 성품지원 (부산 동구협의회)



▼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돕기 (경기 가평군협의회)



▲ 울산시 전입 탈북민 TV기증식 (울산 남구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9월 8일 부산동부경찰서를 통해 관내 탈북민 가정에 식료품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2일 경찰관계자와 함께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송편, 불고기 등 명절음식과 격려금, 어린이·학생용 자전거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와 국제로타리 3721지구(총재 최해상)은 8일 울산시 전입 탈북민 가정에 텔레비전을 기

중했다.

지역 봉사활동



▼ 추석맞이 노인요양시설 '실버랜드' 위문 (대전 중구협의회)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위한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 (경기 파주시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9월 8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와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7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위한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를 열고,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최보순)가 준비한 송편을 사할린 동포 108세대에 나눠드렸다.



▲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 (경남 거창군협의회)



▼ 어려운 이웃돕기 나눔행사 (전남 해남군협의회)



▲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대구 수성구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순)는 9월 6일 정장리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의류와 이불 등 생필품을 전하는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8월 29일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주민 시설 겨자씨공동체(해남군 옥천면)에 격려 물품을 전달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9월 12일 수성구청 회의실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 농촌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경남 함양군협의회)

▼ 농가체험 및 일손 돕기 (경기 안산시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서정숙)는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농촌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고,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일 반월농협조합원 포도 농장과 무화과 농장을 방문하여 '농가체험 및 일손 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 추석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강원 홍천군협의회)

▼ 평화와 통일의 꽃밭 김매기작업 (강원 철원군협의회)



▲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 (인천 서구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9월 9일 (구)보령수퍼~석화자동차공업사 구간에서 '추석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했고,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대섭)는 8월 22일 노동당사에서 '2016년 평화와 통일의 꽃밭 김매기작업' 행사를 개최해 잡초제거 및 비료주기를 실시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화)는 9월 6일 대항기관장인 강범석 서구청장, 주부환경연합 회원, 공무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및 장보기 (전남 고흥군협의회)



▲ 전통 시장 체험 및 홍보 캠페인 (부산 서구협의회)



▲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추석 장보기 (전북 익산시협의회)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전명숙)는 9월 9일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고흥 전통시장에서 실시했고,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도 6일 충무동 새벽시장 및 일대에서 '전통 시장 체험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7일 익산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추석 장보기' 행사를 열었고,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터미널 및 사강시장 일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이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전통시장이용 홍보 캠페인 (경기 화성시협의회)

해외 지역 통일활동



▲ 이수석 박사 초청 통일문제 간담회 (LA협의회)



8천만이 행복한 평화통일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 준비합니다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8월 2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를 초청해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수석 박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지만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 망명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나, 장마당이 많이 서면서 자본주의 형태가 상당히 흡수된 상황을 ‘북한의 변화’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는 1~2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통해 차차 북한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그 효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규탄 시위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9월 17일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의 날' 행사에서 부스를 열고 주류사회인들과 한인들에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지인 게러리 블러바드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실시해, 많은 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 제 5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대회 (베트남 하노이지회)

베트남 하노이지회(지회장 홍길동)는 하노이한인회,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4일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호텔에서 **5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교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제 5차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열렸으며, 안광우 하노이지회 총무위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 ▲북한은 핵개발에 투입하는 힘과 노력을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 ▲우리는 이국만리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온 국민과 일치단결하여 국가안보와 조국 평화통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함께 제창했다.



▲ 한가위 나눔 한마당 (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카고 및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16명의 탈북동포와 가족을 초청해 **‘한가위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망향단 차례상을 준비하여 탈북동포들 각자의 고향과 선조를 기리며 차례를 지냈다. 이어 시카고 평통 주관 ‘탈북동포 후원 기금 마련 골프대회’와 ‘7K 달리기’ 등의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탈북학생에게는 장학금을, 탈북동포에게는 격려금 및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문화공연과 함께 탈북동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곧게 몸을 펴고, 고개마저 쪽 뺀 채 두리번거리는 품새가 찾는 이라도 있나 싶었다. 주위엔 새 계절이란 이유로 한껏 치장한 이들로 넘쳐나는데 그 흔한 잎사귀 한 장 없이 불품없이 마른 몸뚱이를 드러낸 게, 참 보잘 것 없다 싶다. 뭐 꽃대가 시원찮으면, 만개(滿開)했다는 꽃송이라도 좀 볼만해야 하거늘... 못났다 흉보다 한 걸음 물러서니 붉은 꽃 잎이 시야에 들어온다. 다시 한 걸음 더 물러서니, 고만고만한 키를 자랑하는 꽃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이 제법 귀엽다. 냉큼 한 걸음 더 물러서자, 굵은 나무동치 아래 홍운(紅雲)이 자욱하다. 덜컥 심장이 뛰고, 이제는 그 모습이 아쉬워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마음도 사랑일까.

하늘아래 피어난 꽃구름같이, '용천사와 '꽃무릇공원'

함평을 여행한다면 파스텔 톤 봄꽃 사이로 하릴없이 날개 짓 하는 나비를 떠올릴 것이다. 보통은 말이다. 그런데 구태여, 계절이 바뀌길 손꼽아 기다려 서해안을 따라 내려간 까닭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담장 아래 피어난 붉은 꽃무리가 보고 싶어서였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꽃무리가 상징하는 애뜻한 감정이 그리운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이라... 오롯이 그 감정이 지닌 의미를 떠올려 옛 기억을 뒤적이다 보니, 어느덧 새 계절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사화라고 하면 같은 산 너머 영광의 불갑사와 함께 첫 손에 손꼽힌다는 사찰은, 이맘때 가장 분주하다. 대웅전 돌 층계참 아래, 용이 승천했다는 샘을 품고 있어 용천사라 이름 지어진 사찰은 대웅전과 범종각, 응진당,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갑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이어진 숲길과 오래된 돌다리, 돌계단. 빗바랜 쪽빛 단청 위로 제 혼자만 색을 가진 듯 더없이 선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진다.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아늑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사찰 안은 꽃무리가 진 후에도 늦가을의 산보를 즐기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 들려, 이곳의 자랑이라는 해시계 위의 그림자도 구경해보자. 또 용천사 바로 곁으로 꽃무릇공원도 위치해 있다. 아담한 호수를 옆구리에 끼고 야트막한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 데다 쉬어가기 좋은 쉼터도 여럿이라 게으르게 걷기 좋다.





◀ 상사화



▲ 용천사

사실 용천사나 꽃무릇공원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담장 아래 펼쳐진 상사화의 선명한 이미지로 더 유명한 곳.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대신해 대지 위로 피어난 붉은 구름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어여쁜 낭자를 연모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어느 스님의 순정이 한낱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 애 달게 그리워했던 이름 하나쯤은 있지 않겠나. 그 이름들이 모여 이곳에 꽃구름이 되었나 싶다.

그립고, 그리운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그런데 그리 그리운 이름에 어디 정인의 이름 석 자만 있을까. 연모의 무게가 다를 뿐 어머니, 아버지, 형제, 동무 그리고 내 나라, 나의 조국 부를수록 그리운 이름들은 수없이 많다. 아주 먼 타국 땅에서 시리게 불렀을 그리움들 역시 이곳에 피어있다.

3.1운동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 땅이 아닌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이 땅을 위해 생(生)을 바친 붉은 투혼이 흔적을 남긴 상해임시정부의 청사를 고스란히 재현해낸 곳이 함평에 위치해 있다. 너른 잔디 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제일 처음 부러 찾아온 후손을 반갑게 맞이한다.

실제 임시정부의 내부를 고스란히 재현해 낸 덕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사용하던 집무실과 빛바랜 태극기가 시선을 끄는 임시정부 회의실은 물론, 침실과 식당 등 개인공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또 생활공간 반대편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과 일제의 만행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독립운동역사관도 잘 조성되어 있다.

사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함평에 재현된 까닭은 다소 낯선 이름의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을 기리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덕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부차장과 회계검사원 검사장을 역임한 김철 선생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독립운동역사관 곁으로 선생의 기념관도 위치해 있어, 함께 둘러보기를 권한다.



▲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내부



◀ 일강 김철선생 사당

▲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하염없이 고향을 그리워했을 그 마음들이 선연해, 시큰 콧잔등이 울린다. 눈치 없이 누군가 흘리는 말이라도 울고 있냐 물으면 민망해질 것 같아, 부러 입매에 힘을 꽉 주고 한껏 심숭생숭해진 마음을 애써 추스른다.

쭈뼛대며 건넌 어떤 고백, '돌머리해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물기 어린 숨을 고르며, 꽃구름 아래 주워들었던 심장 닮은 돌맹이를 손바닥 위로 굴리며 인근에서 낙조로 제법 유명하다는 돌머리해변으로 향한다. 예상대로 향구를 끼지 않은 가을날의 서해바다는 한적하기 그지없다.

해변 뒤편으로 온기가 사라진 오두막만이 덩그러니 모여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해변 끝자락엔 도무지 그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전망대가 뻗대고 서있다. 쉬엄쉬엄 한참을 기웃거리며 해변을 걷다 보면 어느덧 새파란 벽과 마주하게 된다. 역시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새파란 벽 위, 식상한 문장이 어색하게 주뻗댄다.

‘인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되고,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

한때 어렸던 심장에는 낭만적으로 들렸던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맘이 차도록 내내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그 앞 모래 깊이 파묻는다. 내 그리운 이름들을 함께 묻는다. 때론 묻어두고 떠나는 마음도 사랑일 때가 있다. 그리고 남겨진 마음 위로 또다시 이 가을이 흘러간다.



<글.권혜리 / 사진.김규성>

내 연필 줄 게. 그만 시뚝해!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 시뚛하다(북한말) = 트라지다(남한말)



가을은 대하 철이다. 남한에서는 서해안 곳곳에서 대하 축제가 열리며, 찜, 소금구이, 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철 새우의 맛'을 즐기곤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새우를 먹을까? 어떤 요리를 즐길까? 남한의 대하를 뜻하는 '왕새우'는 고급 수자원으로 분류돼 20년이 넘게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평소 새우를 맛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장을 할 때는 작은 새우(함북도 사투리 싸구재)를 조금 넣기도 한다. 서민들의 요리는 아니지만, 북한에도 이색 새우요리가 있다. 새우를 그대로 조리해서 즐기는 남한과 달리, 새우를 으깨 묵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것. '새우찬묵'이라고 불리는 이 요리는 기존에 남한에서 맛보던 요리와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요리재료

새우 700g, 달걀 3개, 피클 30g, 완두 50g, 감자 100g, 당근 100g, 레몬 1/2개, 젤라틴 200g, 마요네즈 100g,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깨소금 약간



요리방법



1 젤라틴은 물에 20분 간 불린 뒤 약불로 5분가량 끓여 녹인다.



2 감자와 당근의 껍질을 벗긴 뒤 완두콩과 함께 삶는다. 이후 피클과 함께 잘게 썰어준다.





3 달걀은 중불에 삶아낸 뒤 으깨준다.



4 왕새우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어 머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 내장을 제거해 준다.



5 껍질을 깠 왕새우의 절반은 두 쪽으로 썰어 소금, 후춧가루, 레몬즙을 넣어 무치고, 나머지는 잘게 다진다.



6 감자, 피클, 으깬 달걀, 당근과 완두콩, 다진 새우살 등을 섞어 마요네즈, 깨소금, 생크림, 레몬즙,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무친다.



7 무친 새우에 젤라틴을 섞워 새우찬목을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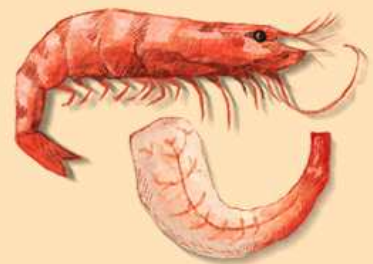
8 새우살무침을 접시에 담고, 저며 썬 새우찬목을 장식하듯 놓으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가을 진미, 맛과 영양 팍 채운 **대하**등장이요!

대하(大蝦)는 가을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며, 예부터 서해안의 명물이었다. 조선시대 정약전 선생이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붉은 수염이 몸길이의 세 배나 된다"고 소개했다. 이 수염 덕에 중국에서는 바다의 노인이라는 '해로(海老)'라고 불렸으며, 궁중에서도 대하짬을 즐길 정도로 진미대접을 받았다. 또, 새우의 크기에 따라 대하(大蝦), 중하(中蝦), 소하(小蝦)로 나뉘는 것은 삶아먹고, 중하는 간장에 절였으며, 작은 것으로는 젓갈을 담그곤 했다.

대하에는 질 좋은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칼슘과 철분이 특히 많아 뼈 건강과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다. 더불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가을철 몸 보양에도 좋은 음식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보양식은?



이열치열 얼큰한 육개장이 최고!

여름을 이겨내는 보양식은 얼큰한 육개장입니다. 저만의 육개장 요리로 삼복더위를 이겨냈습니다. 한우 소고기 600g, 국산콩나물, 국산고사리, 텃밭에 키운 파를 뽑아서 큰 냄비에 넣어서 얼큰하게 육개장을 만들었습니다.

1.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2. 소고기 600g을 넣고 타지 않게 볶습니다.
3. 생수 1리터와 채소로 만든 육수 1리터를 넣습니다.
4. 국산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파 송송 넣은 뒤 콩나물, 삶은 고사리를 넣습니다.
5. 약한 불에서 중불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고정해놓고 30분 끓이면 맛있는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기온이 35°C일 때 육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열치열이다 보니 맵게 요리를 했습니다. 재료가 국내산이다 보니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해바라기)

감자탕에 토마토가 통으로 일품 보양식~



제가 추천하고 싶은 보양식은 토마토 감자탕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감자탕에 토마토가 통으로 들어간다니. 저로서는 처음에는 상상이 가지 않던 조합이며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접하게 된 계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골골 대며 입맛이 없을 때 친구가 '획기적이며 몸에도 좋은 음식을 사주겠다'며 불러서 간 그곳에서 이 음식을 보았습니다.

감자탕에 토마토라니요. 파스타가 들어가고 치즈가루가 들어가고.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 훌쩍이며 감자탕이 보글보글 끓는 것을 보며 '과연 맛은 어떨까? 괜찮을까?' 연신 궁금해 하며 완성되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완성됐을 때 국물을 한입 먹어보았습니다. 토마토 때문에 새콤하면서 끓일 때 넣은 밀크소스 덕분에 부드럽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자탕이다 보니 살짝 매콤하기도 하구요. 부은 목에 부드럽고 얼큰한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니 그 순간만은 감기가 낫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탕 고기도 연해서 몇 점 먹기도 했으니 역시 감기가 심해서 인지 저에게는 국물이 참 좋았어요. 원래도 영양이 많은 감자탕에 익히면 영양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토마토가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토마토가 뇌졸중·심근경색 예방, 혈당 저하, 암 예방을 해준대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구요. 우연치 않게 접한 퓨전음식

'토마토 감자탕'. 통일이 되면 북한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비주얼에 거부감을 가지겠죠?

(주준영)

제주도의 명물, 전복돌솥밥과 해물뚝배기

제가 소개해드릴 보양식은 전복돌솥밥과 해물뚝배기입니다. 이번 휴가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 음식 중에 손꼽는 음식이었습니다. 해물뚝배기는 국물 한입 떠먹는 순간 해산물의 시원함과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고, 전복돌솥밥은 넉넉히 얹어진 전복과 고슬고슬 지어진 찰진 밥에 게우젓을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전복 내장을 제주도말로 게우라고 하는데, 이 전복 내장으로 만든 것을 게우젓이라고 합니다. 전복 무게에서 약 10%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게우에는 전복의 영양이 대부분 몰려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고소하며 잘 식은 게우젓은 감칠맛이 깊어 식욕을 돋우며 허약해진 사람들의 원기를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하네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며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보양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담이)



'통일'이란 글자를 찾아보세요!

통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통일'은 우리 생활 속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통일이라는 글자를 찾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더욱 좋아요.



- 응모기간 : 2016. 10. 05. ~ 2016. 10. 25.
- 응모방법 :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첨부 하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5명
- 시상내역 :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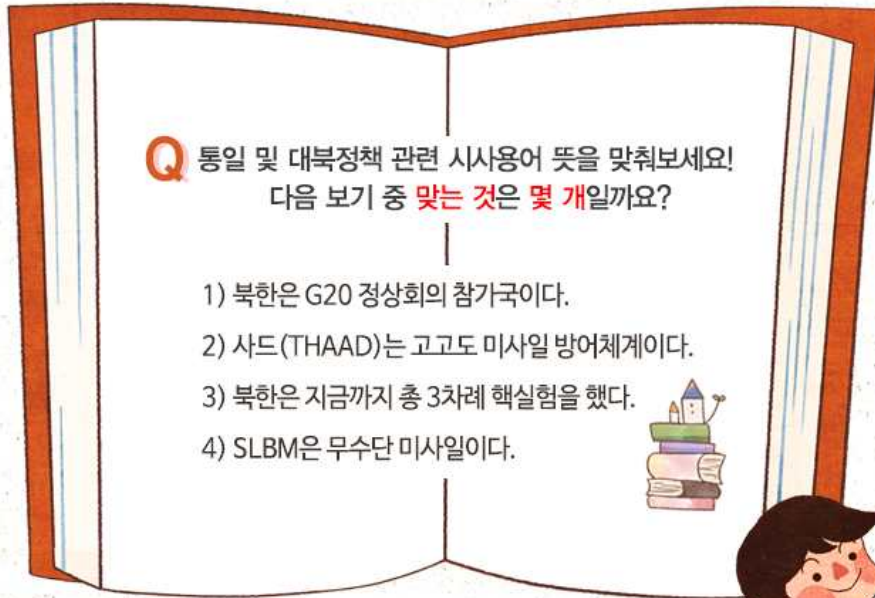
※ 앱을 통해 접속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행복한통일)로 응모해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독서의 계절 가을, 통일지식을 겨룬다



Q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시사용어 뜻을 맞춰보세요!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은 몇 개**일까요?

- 1) 북한은 G20 정상회의 참가국이다.
- 2)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 3) 북한은 지금까지 총 3차례 핵실험을 했다.
- 4) SLBM은 무수단 미사일이다.



- 응모기간 : 2016. 10. 05. ~ 2016. 10. 25.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 수 : 30명
- 시상내역 : 편의점 음료교환권

※ 앱을 통해 접속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응모해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의 속담찾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스콘송	010-**57-7004
2	백년고독	010-**40-7090
3	나철수	010-**16-2849
4	삶의의미	010-**28-8237
5	알렉시엘	010-**28-5384
6	김은미	010-**97-4443
7	지우개	010-**82-1252
8	문의화	010-**42-2073
9	빵순이	010-**08-7344
10	신기한	010-**72-1452

'북한의 추석풍경 OX퀴즈' 이벤트

닉네임	휴대폰 번호	닉네임	휴대폰 번호
웃으면복이옵니다	010-**71-3868	박소현	010-**12-0979
김용일	010-**35-5367	까칠한토리	010-**04-4446
최정	010-**74-1966	비니비니	010-**90-4090
주희	010-**56-6750	미미맘	010-**83-4957
심은영	010-**55-9443	바람	010-**75-9250
안성아	010-**52-4455	이선희	010-**83-3398
강국	010-**33-7044	설록홈즈	010-**61-9805
제이제이	010-**40-4380	준페라리	010-**32-8484
민경호	010-**70-6805	우리들	010-**21-9113
슬픈막걸리	010-**93-6147	김금자	010-**87-6639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13-2858	9	010-**61-9805
2	010-**09-7195	10	010-**18-4922
3	010-**18-6473	11	010-**64-1003
4	010-**33-7044	12	010-**46-5080
5	010-**20-7889	13	010-**58-9396
6	010-**45-0218	14	010-**62-4670
7	010-**86-5263	15	010-**26-4897
8	010-**50-7091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